

자녀의 학교 급별 교육비지출 :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Expenditure for Education of Two children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純美
여주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金星喜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sumer Scienc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ofessor : Soon-Mi Kim
Yeo-joo Technical College, Dept. of Home Economics
Full-time Instructor : Sung-Hee, Kim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education expenditure and to analyze contributing factors to total education expenditure for two children among married couples. For these purposes, total sample of 1,256 married couples those having two children of both pre-school aged and school aged were selected, and total sample was divided into four groups by first child's school aged; those were pre-school aged(375), elementary school aged(385), middle & high school aged(248) & college aged(248).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percentile, and tobit and OLS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households those having the first child of pre-school aged didn't spent for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whil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of school aged increased continuously. The households having the first child of high school aged spent the most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mong four groups, however, total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households having the first child in college aged spent the most education expenditure among four groups. Second, pre-school aged's contributing factors to total education expenditure were household head's age, family size, home ownership and financial asset amount, and elementary school-aged's factors were household head's age, education level, home ownership and total household income. Also, household head's education level, wife's expectation of future economy, residence, total household inco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otal education expenditure in

middle and high school-aged, and household head's job, home ownership, contact with neighborhood, residence and Engel's coefficient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college aged.

I. 문제 제기

부모들은 자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위주의 사회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지위상승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녀교육이 가계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 우리나라 가정이 자녀교육에 쓴 사교육비는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학부모가 부담한 사교육비는 17조4천6백40억원으로 그해 국민총생산의 5.77%에 해당되며, 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한 공교육비는 국내 총생산(GDP)의 5.5%를 차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따라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투자의 경향이 강해 교육에 대한 투자지출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전국 2천8백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가구 경제활동조사(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이후 6년간 지출되는 평균 교육비는 가구당 2천5백만원이었고 이중 과외비가 1천6백95만5천원을 차지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 1996년에 걸친 가구교육비 지출변화를 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12만4천원에서 20만4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과외비는 같은 기간동안에 2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교교육비는 1996년의 경우 18만7천원, 과외비는 18만4천원으로 나타나 학교교육비만큼의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평균 총 교육비는 30만7천원이었다. 또 1993년 유치원 이상의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34.5%만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던 것에 비해 1996년에는 70.9%로 두배 정도 증가하였다(매일경제, 1997년, 5월10일자).

한편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는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출비의 구성과 지출액이

변화한다.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까지는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교육비의 지출이 사교육비의 지출보다 많다. 또한 사교육비의 지출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학과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외비보다 예·체능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인 경우에는 과외비가 예·체능교습비에 비해 두배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급별에 따라 그 구성과 지출액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의 지출은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급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위해 소득이나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같은 교육비 지출액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박상학, 1992; 조성숙, 1994;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Yang, 1995; Sandra, 1996; Moon & Kim, 1997; 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이윤금, 1996; 정영숙, 1996a, 1996b)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자녀의 연령이나 학교 급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가계지출에서 갖는 중요성이 간과되어져 왔다(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이윤금,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이에 본 연구는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가계의 총 교육투자액 및 구성을 파악하며 총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학교 급별에 따른 교육투자의 현황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가계에서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교육투자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비 지출액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각 학교 급별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육을 통하여 성취한 지식과 기술 등은 투자활동의 결과이다(Schultz, 1961; Becker, 1965). 이와 같이 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은 처음부터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 주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일생동안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ryant, 1990). 한 예로 대학교 졸업자의 생애소득이 중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생애소득에 비해 증가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자녀의 미래 성취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Ehrenberg & Smith, 1994; 김성희, 1996).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에는 수업료, 교재비, 보충교육비(과외비, 예·체능교습비 등) 등과 같은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같은 기본적인 실질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취업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임금만큼의 기회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교육이 끝난 후에 투자된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된다(Bryant, 1990; 김영용·전용덕, 1993; 배무기, 1993; 박일규, 1993).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증가, 전문교육의 확대, 그리고 입시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조선일보, 1997년 3월 13일자).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거나 이에 대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변수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교육재화 및 서비스 구입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Huston(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은 교육비 지출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연간 \$7.20 정도의 교육비가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인 경우는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연간 \$552를 더 지출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 \$233.90 정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혜택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농림수산업인 경우에 비해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윤금(1996)의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비 지출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Abdel-Ghany & Foster(1982)는 소득과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부의 교육수준과 교육비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민감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간의 관계를 밝힌 정영숙(1996a)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유무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쳐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비취업주부가계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규(1995)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어 자녀를 위한 인적자본투자가 증가한다고 하여, 과거의 경제경험과 미래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는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및 미래경제전망 등과 같은 주부의 경제적 인식과 관련된 변수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편모가정과 기혼가정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Jang

(1995)의 연구에서는 편모가정의 경우, 주택소유가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주택을 소유하는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임대한 가계에 비해 공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지만 사교육비는 적게 지출하였으며, 이윤금(1996)의 연구에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Jang(1995)의 연구나 이윤금(1996)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이 교육비 지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ston(1996)의 연구에서 거주지역은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도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의 가정에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서도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 5대도시, 중·소도시, 융면으로 갈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이 강북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거주지역은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한편 가족크기는 교육비 지출에 부적 영향을 미쳐 Huston(1996)은 가족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연간 교육비는 \$81.00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는 Lino(1994)의 연구에서 자녀가 두명인 가정을 비교집단으로 할 경우, 한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한명을 위해 26%를 더 소비하는 반면,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 자녀에 대해 22% 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것이다. 가족수나 자녀수의 증가는 1인에 대한 총 소득의 분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소유와 소득원수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주택이 자가인 경우, 소득원수가 많은 경우 가계의 재정상태가 좋으므로 자녀의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Jang(1995)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가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임대한 가계에 비해 공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지만 사교육비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ston(1996)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와 소득원수가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웃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교육비 지출은 가구주의 월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높은 가구가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낮다는 연구결과와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월평균 소득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대우경제연구소, 1994; 한국경제신문, 1994년 7월 24일),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적은 가계가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육비는 가계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정영숙(1996b)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총교육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으며, 편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Jang(1995)의 연구와 이윤금(1996)의 연구에서도 두 집단 모두 소득만이 교육비 지출과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Huston(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소득, 소득제곱, 소득세제곱이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과외비 지출규모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한 박상학(1992)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과외비율과 과외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영숙(1996b)의 연구에 의하면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총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교육비의 지출은 적었으나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uston(1996)의 연구에서는 자산은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채소유여부의 경우 부채가 있다는 것은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가계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은 자녀

를 위한 투자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므로(박일규, 1993) 부채를 소유한 가계는 자녀를 위한 교육비의 지출이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엥겔계수는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엥겔계수가 낮은 가계가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및 총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총 교육비 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 급별에 따른 가계의 총 교육비 지출의 구성을 살펴본 후 학교 급별에 따른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TE = f(HH, FH, FI)$$

여기에서 TE는 학교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총교육비이며, HH는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 FH는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FI는 재정 관련요인이다. 이때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에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과거 경제경험 및 미래 경제전망을,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는 가족수, 소득원수, 주택소유형태, 이웃접촉빈도, 거주지역을 사용하였고, 재정 관련요인에는 가계의 월소득액, 가계금융자산액, 부채소유여부, 가계생계지수를 포함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자료는 1994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3,024가계를 다단계 표본추출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 지출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부부가 응답한 2,697가계 중에서 2인의 미혼자녀를 둔 가계로 한정하여 1,419가계가 1차표본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녀를 둔 가계를 제외하는 2차표본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표본가계로 1,256가계를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첫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비 지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첫 자녀의 학교 급별 총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t분석과 OLS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Tobit분석과 OLS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3) 전체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

첫 자녀의 학교 급별¹⁾에 따라 표본가계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표본가계의 구성을 살펴 보면,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은 375가계(29.9%),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집단은 385가계(30.7%),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집단은 248가계(19.7%), 대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집단은 248가계(19.7%)였다. 각 학교 급별에 따라 표본가계를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는 취학전 집단의 31.2%, 초등학교 집단의 21.3%, 중·고등학교 집단의 16.9%, 대학교 집단의 15.3%로

1)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 기초하여 자녀의 학교급별을 취학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하였으며,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의 집단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터율이 3-4년이기 때문이다(통계청, 1998).

학교급별 출생순위	취학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첫째자녀	취학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둘째자녀	취학전,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정방법		
<u>종속변수</u>			
학교교육비	학교에서 받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평균지출액(만원/월) (수업료, 기성회비, 출입앨범대, 수학여행비, 문구료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		
과외비	자녀의 성적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평균지출액(만원/월) (학원비, 가정교사비, 그룹과외비, 이와 관련교재 구입비 등)		
특별활동비	자녀의 정서함양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평균지출액(만원/월) (음악, 미술교육, 신체적 활동을 위한 학원비 등)		
학령전 교육비	유아원 및 유치원 교육을 위한 평균지출액(만원/월)		
기타교육비	기타 제반 지출액(만원/월)		
사교육비	과외비+특별활동비+학령전 교육비+기타교육비(만원/월)		
총교육비	학교교육비 + 사교육비(만원/월)		
<u>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u>			
가구주의 연령	1=중졸이하 1=봉급생활자 0=자영업 및 자유업/농림수산업/비정규직/비취업 등 1=취업(봉급생활/자영업 및 자유업/농림수산업/비정규직 등) 0=비취업	2=고졸 3=전문대졸이상 3=보통 5=매우 반족 3=보통 5=매우 긍정적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u>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u>			
가족수	동거가족수 가족내 소득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		
소득원수	1=자가 1=매일 만남 1=서울	0=임대 및 기타 2=2-3일에 한번 2=광역시	3=일주일에 한번 3=중소도시 및 기타
주택소유형태			
이웃집촉빈도			
거주지역			
<u>재정 관련요인</u>			
가계월소득액	가계의 평균소득액(만원/월) (급여소득액+상여금액+자영소득액+부업소득액+자산소득액+이전소득액+기타소득액)		
가계금융자산액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만원) (저축총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총액+계불입총액+사채준 총액)		
부채소유여부	1=부채있음	0=부채없음	
엥겔계수	월평균 가계식비지출액/ 월평균 가계지출액		

첫 자녀의 학령이 낫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인 경우는 취학전 집단의 69.1%를 차지하였으며, 초등 학교 집단의 경우는 52.7%, 중·고등학교 집단은 46.0%로 나타나 첫 자녀의 학령이 취학전인 경우가 봉급생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부의 취업상태는 취학전 집단의 10.1%, 초등학교 집단의 16.9%, 중·고등학교 집단의 24.6%, 대학교 집단의 24.2%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첫 자녀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주부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택소유형태를 살펴 보면, 주택을 가장 적게 소유한 것은 중·고등학교 집단으로 30.6%가 주택을 소유하였고,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 집단으로 73.0%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접촉빈도는 모든 집단에서 상당

〈표 2〉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

학교급별 범주형변수	취학전 (375)		초등학교 (385)		중·고등학교 (248)		대학교 (248)		전체가계 (1,256)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구주교육수준										
중졸이하	72	19.2	93	24.2	88	35.5	104	41.9	357	28.4
고졸	186	49.6	210	54.5	118	47.6	106	42.7	620	49.4
전문대졸이상	117	31.2	82	21.3	42	16.9	38	15.3	279	22.2
가구주직업										
봉급생활	259	69.1	203	52.7	114	46.0	117	47.2	693	55.2
자영업/자유업	93	24.8	141	36.6	92	37.1	88	35.5	414	33.0
농림수산업	5	1.3	12	3.1	18	7.2	14	5.6	49	3.9
비정규직/무직	18	4.8	29	7.6	24	9.7	29	11.7	99	7.9
주부취업										
취업	38	10.1	65	16.9	61	24.6	60	24.2	224	17.8
비취업	337	89.9	320	83.1	187	75.4	188	75.8	1032	82.2
주택소유형태										
소유	131	34.9	192	49.9	76	30.6	181	73.0	676	53.8
비소유	244	65.1	193	50.1	172	69.4	67	27.0	580	46.2
이웃접촉빈도										
매일만남	246	65.6	240	62.3	147	59.2	154	62.1	787	62.7
2-3일에 한번	83	22.1	79	20.5	49	19.8	53	21.4	264	21.0
일주일에 한번이하	46	12.3	66	17.1	52	21.0	411	6.5	205	16.3
거주지역										
서울	115	30.7	133	34.5	80	32.3	94	37.9	422	33.6
광역시	93	24.8	92	23.9	74	29.8	71	28.6	330	26.3
중소도시 및 기타	167	44.5	160	41.6	94	37.9	83	33.5	504	40.1
부채소유여부										
유	200	53.3	197	51.2	113	45.6	113	45.6	623	49.6
무	175	46.7	188	48.8	135	54.4	135	54.4	633	50.4
연속형변수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가구주연령	32.91	2.82	37.48	3.19	43.20	4.15	46.53	6.82	39.01	6.66
주부과거경제경험	3.11	0.76	3.20	0.71	3.25	0.67	3.26	0.67	3.19	0.71
주부미래경제전망	3.19	0.58	3.05	0.61	2.96	0.64	2.96	0.66	3.05	0.62
가족수	4.18	0.49	4.15	0.48	4.21	0.56	4.16	0.46	4.17	0.49
소득원수	1.22	0.44	1.28	0.48	1.31	0.47	1.50	0.68	1.31	0.52
가계월소득액	178,32	107,93	191,74	119,56	186,19	118,67	184,89	104,32	185,181	12,90
가계금융자산액	839,35	820,14	986,60	1159,07	1103,14	1336,35	1119,48	1328,17	986,33	1139,92
엥겔계수	0.33	0.14	0.33	0.13	0.32	0.12	0.33	0.13	0.33	0.13

수의 사람들이 이웃과 매일 접촉을 하고 있었으며,

부채소유여부를 보면 취학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부의 과거경

제경험은 첫 자녀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만족하였으

나. 주부의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은 첫 자녀의 학령이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첫 자녀가 어

린 주부일수록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대학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경우 소도시 및 기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밖에 표본가계의 소득원수, 가계월소득액, 가계금융자산액은 자녀의 학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계생계지수는 유사한 수준을 보여 학교 급별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 분포

첫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표본가계의 월평균 총 교육비는 <표 3>과 같다.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은 학교교육비가 없지만, 초등학교 집단은 4,65만 원, 중·고등학교 11,42만원, 그리고 대학교 17,49만 원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사교육비 중 과외비는 취학전 집단의 11가계(2.9%)만이 9,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초등학교 집단은 174가계(45.2%)가 11,24만원, 중·고등학교 집단은 150가계(60.5%)가 20,07만원. 그리고 대학교 집단은 106가계(42.7%)가 17,07만원을 지출하였다.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 일 때 과외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과외비지출액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상의 가계가 자녀들

의 입시준비를 위해 학교교육과 함께 과외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풍토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의 입시준비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고 제시한 김행(1994), 조성숙(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첫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집단에서 과외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42.7%가 되는 것은 둘째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활동비를 지출하는 가계는 취학전 집단 중 68가계(18.1%)로 7,06만원, 초등학교 집단은 215가계(55.8%)로 10,77만원, 중·고등학교 집단은 86가계(34.7%)로 12,82만원, 대학교 집단은 68가계(27.4%)로 13,2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집단의 특별활동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어학, 컴퓨터, 디자인 등의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집단은 과반수 이상의 가계가 자녀의 정서함양, 특기 교육 등을 위해 특별활동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특별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고학년이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김성희(199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령전 교육비는 취학전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에서만 지출하였으며, 기타교육비는 취학전 집단이 4,66만원, 초등학교 집단은 5,43만원, 중·고등학교 집단은 7,71만원, 그리고 대학교 집단

<표 3>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의 구성

교육비구성\학교급별	취학전 (375)			초등학교 (385)			중·고등학교 (248)			대학교 (248)			전체가계 (1,256)		
	F	Mean	S.D.	F	Mean	S.D.	F	Mean	S.D.	F	Mean	S.D.	F	Mean	S.D.
학교교육비	0	----	----	358	4,65	5,01	246	11,42	7,88	237	17,49	17,28	841	10,25	11,88
과외비	11	9,64	8,95	174	11,24	7,36	150	20,07	12,16	106	17,07	10,35	441	15,60	10,70
특별활동비	68	7,06	7,10	215	10,77	8,32	86	12,82	10,94	68	13,22	11,53	436	10,97	9,45
학령전교육비	208	9,24	4,49	99	8,19	3,97	0	----	0	----	0	----	307	8,90	4,35
기타교육비	59	4,66	3,61	49	5,43	3,59	28	7,71	4,53	24	7,67	5,28	160	5,88	4,23
사교육비	258	10,38	7,08	348	15,37	10,40	204	21,16	13,43	157	18,42	12,22	977	15,70	11,35
총교육비	268	10,38	7,08	358	18,40	11,71	248	28,74	16,91	240	29,33	19,79	1137	21,07	16,09

은 7,67만원을 지출하여 첫 자녀의 학령이 높을수록 기타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외비, 특별활동비, 학령전 교육비, 기타교육비를 합한 사교육비의 지출을 보면 취학전 집단이 10,38만원, 초등학교 집단이 15,37만원, 중·고등학교 집단이 21,16만원, 그리고 대학교 집단이 18,42만원으로 중·고등학교 집단의 사교육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첫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의 지출은 사교육비와 달리 취학전 집단은 10,38만원, 초등학교 집단은 18,40만원, 중·고등학교 집단은 28,74만원, 대학교 집단의 경우 29,33만원으로 나타나 대학교 집단의 총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두 자녀 모두 대학교에 다니거나 첫 자녀가 대학교, 둘째 자녀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 시기는 학교 교육비의 지출 뿐 아니라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아 총 교육비의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Moon과 Kim(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때,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은 Tobit 분석²⁾을 실시하였고, 그밖의 집단은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자녀의 학교 급별이 취학전인 집단에서는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 중에서 가구주의 연령 만이 자녀의 총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총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uston (1996),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같은 취학전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 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 비해 교육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및 가구 관련요

인 중에서는 가족수, 주택소유형태가 총 교육비 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수가 적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보다 임대한 경우에 총 교육비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ston(1996), 정영숙(1996)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서,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학교 급별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총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지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충족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가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마련은 결혼 후 7.4년 정도가 소요되므로(대우경제연구소, 1996: 중앙일보, 1996년 6월 20일자) 첫 자녀가 취학전인 시기에는 아직 주택을 마련할 비율이 낮으며, 이미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는 주택용차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관련요인에서는 가계금융자산액만이 자녀의 총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금융자산이 많은 것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자본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 기회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의 총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주택소유형태로서, 주택마련을 위해 소득을 지출하게 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자녀의 학교 급별이 초등학교 집단인 경우에는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총 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에

2) 첫 자녀가 취학전인 집단은 375가계로 이 중 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계가 107가계(28.5%)였다. 따라서 취학전 집단의 총 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첫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총 교육비에 대한 Tobit 및 OLS 분석결과

변수	학교급별		취학전 (375)		초등학교 (385)		중·고등학교 (248)		대학교 (248)		전체가계 (1,256)	
	Est.	Std err	Est. ^a	Std err	Est. ^a	Std err	Est. ^a	Std err	Est. ^a	Std err	Est. ^a	Std err
가구주연령	0.633***	0.193	0.484*	0.205	0.243	0.273	0.110	0.227	0.878***	0.079		
가구주교육수준 (전문대이상)												
중졸이하	0.627	1.581	-4.525*	1.931	-5.464	3.406	-2.207	4.183	-1.160	1.312		
고졸	0.455	1.250	-5.335**	1.616	-7.112*	3.243	-0.722	4.063	-1.777	1.141		
가구주직업(봉급생활)	2.163	1.156	1.303	1.351	-3.519	2.195	-6.910*	2.854	-2.942*	0.929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0.929	0.718	0.900	0.998	1.604	1.699	4.193	2.220	0.831	0.089		
주부의 미래경제전망	-0.036	0.970	-0.534	1.187	-4.584**	1.732	-4.000	2.217	-2.750***	0.771		
주부의 취업유무(취업)	-3.378	2.036	-0.351	2.004	-1.483	3.625	-3.390	3.728	-0.493	1.364		
가족수	-3.020*	1.178	-1.653	1.373	-0.851	1.929	-1.210	2.848	-0.846	0.924		
소득원수	0.983	1.508	-0.356	1.628	-0.337	3.330	0.282	2.368	-0.281	1.043		
주택소유형태(소유)	-4.088***	1.185	2.853*	1.319	0.889	2.437	7.123*	3.170	3.802***	0.959		
이웃접촉(매일만남)												
2-3일에 한번	-1.315	1.272	1.155	1.577	2.482	2.811	7.167*	3.432	2.445*	1.103		
일주일에 한번이하	0.146	1.705	3.200	1.803	2.652	3.071	9.284*	4.122	4.496***	1.323		
거주지역(중소도시/기타)												
서울	-1.970	1.289	1.526	1.458	6.199*	2.571	7.344*	3.333	3.776***	1.064		
광역시	-0.172	1.333	0.645	1.645	2.881	2.638	6.445	3.485	2.145	1.117		
가계월소득액	0.002	0.005	0.022***	0.006	0.033***	0.010	0.021	0.014	0.022***	0.004		
가계금융자산액	0.002***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부채보유여부(부채있음)	-0.035	1.073	-0.809	1.261	0.378	2.184	0.012	2.798	-0.477	0.883		
엥겔계수	-5.279	3.871	-6.345	5.106	-16.913	9.756	-32.625**	11.381	-12.070***	3.671		
Intercept		0.155		6.037		32.005		26.788		-6.980		
Log likelihood/F-ratio		-983.882		3.820***		3058***		2,581***		2023 ***		
R square				0.1742		0.2246		0.2035		0.2089		
Adj R square				0.1286		0.1512		0.1248		0.2566		

*p<.05, **p<.01, ***p<.001

a:Parameter Estimate

비해 중졸이하이거나 고졸인 경우에 총교육비의 지출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정영숙(1996)과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서는 주택소유형태가 총 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임대하는 경우에 비해 총 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한편 재정 관련요인에서는

가계월소득액이 많을수록 총교육비 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단지 소득만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변수라고 밝힌 Jang (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총 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었으며, 특히 가구주가 고졸의 교육수준일 때 총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학교 급별이 중·고등학교 집단의 경우,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부의 미래경제전망이 총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출 이상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교육비를 적게 지출하였으며, 주부가 미래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자녀의 총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자녀의 불완전한 미래를 보상해 보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서는 거주지역만이 총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중소도시나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총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5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거주자에 비해 더 많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재정 관련요인에서는 가계월소득액이 많을수록 총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집단의 총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초등학교와 같이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었으며, 가구주가 전문대 이상인 가계에 비해 고졸가계의 총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학교 급별이 대학교인 경우,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주의 직업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인 가계가 자영업, 농림수산업 등과 같은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총 교육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 및 자유업자와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비해 고정소득으로 인한 총교육비의 지출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임대한 경우에 비해 총교육비의 지출이 더 많았으며, 이웃과 매일 만나는 경우에 비해 2-3 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하를 만나는 경우가 총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웃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월평균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대우경제연구소, 1994; 한국경제신문, 1994년 7월 20일자),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가계의 총교육비 지출이 더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은 중소도시나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총교육비의 지출을 더 많이 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교육투자기회가 중소도시나 기타 지역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 관련요인에서는 가계생계지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계생계지수가 낮아 가계생활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자녀를 위한 총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집단의 총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가계 생계지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학교 급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가구주 및 주부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첫 자녀가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이상의 경우에 비해 중졸이하나 고졸인 경우에 총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다. 한편 가구주의 직업은 첫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인 가계가 자영업자 및 자유업자, 농림수산업자 등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총 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하였다. 주부의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은 전체 가계와 중·고등학교 집단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미래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할수록 총 교육비의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 할수록 자녀로 하여금 대리충족하거나 자녀의 지위상승으로 미래를 보장하려는 부모의 심리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학교 급별에 따른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에 있어서 가족수는 취학전 집단에서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 가족수가 적을수록 총 교육비의 지출이 많아졌다. 주택소유형태는 중·고등학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취학전 집단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비해 임대한 경우가 총교육비의 지출이 많았으며, 초등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임대한 경우에 비해 총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자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아 자녀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공급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이웃과의 접촉정도는 대학교 집단에서만 총교육비 지출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매일 이웃과 접촉하는 경우에 비해 2~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접촉하는 경우에 총교육비의 지출이 더 많았다. 이는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많으면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교육투자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교육비나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거주지역은 중·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총교육비의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교육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예로서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이 발달된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교육투자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 관련요인을 학교 급별로 비교해 볼 때, 가계 월소득액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집단의 경우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가계금융자산액은 취학전 집단에서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가계생계지수는 대학교 집단에서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의 과거경제경험, 주부의 취업유무, 소득원수 및 부채보유여부는 각 학교 급별의 총 교육비 지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이러한 영향요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부와 학령기의 미혼 두자녀로 구성된 가계를 대상으로 첫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라 총 교육비 지출정도를 살펴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녀들의 총 교육비 지출은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교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로 갈수록 증가하여 대학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학교교육비를 지출하였으며, 과외비는 중·고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다. 특별 활동비는 대학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전 교육비는 취학전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사교육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총 교육비는 첫 자녀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가계는 자녀의 학령에 따라 교육비의 지출구성을 예견하고 미래의 총 교육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는 학교 급별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학전 자녀를 둔 가계는 학령전 교육 및 자녀의 특기교육에 초점을 둔 재정적 자원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는 저학년 자녀의 특기교육과 고학년 자녀의 학과목 보충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 교육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고등학교 집단의 사교육비에 대해 모든 가계는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대학교 집단의 학교 교육비 및 사교육비는 그 비중이 거의 같으므로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저축제도나 장기융자제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장기적 재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계의 이러한 교육투자 계획은 금융제도의 개선 및 재정상품의 다양화, 정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취학전 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확대, 초등학교의 특

기교육 확대,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에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 실시와 교육자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장기 저리융자제도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병행된다면, 가계가 경험하는 교육비 지출문제를 전략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총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급별에 따른 유의한 요인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취학전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가족수, 주택소유형태, 가계금융자산액 등이었으며, 이러한 변수 중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가계, 금융자산액을 적게 소유한 가계와 같이 재정상태가 낮은 가계를 위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취학전 자녀의 공교육화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 가계월소득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므로,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투자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모의식교육과 함께 학교교육의 범위를 확대시켜 학과교육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교육을 위한 특기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 주부의 미래 경제전망, 거주지역, 가계월소득액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그 중 영향력이 큰 변수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거주 지역임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주의 의식교육과 함께 광역시, 중소도시, 기타 지역의 가계에 정부주도의 교육망을 통한 사교육의 제공과 교육시설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직업, 주택소유형태, 이웃접촉빈도, 거주지역, 가계생계지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조사결과를 통해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학자금융자제도

등과 같은 장기교육자금규모를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가계가 자녀들의 학령에 따른 교육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비 지출액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 급별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자녀의 총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태도, 부모의 교육경험, 부모의 자녀직업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건강상태, 학업성적 등과 같은 자녀 관련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자녀가 중·고등학교 이상인 집단에서 서울지역의 총 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거주지역에 따른 총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학교 급별에 따른 가계의 적합한 인적자본투자는 물론, 지나친 과소비와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사교육비의 지출억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 행(1994). 강남 서초 송파지역 과외비 실태 조사. 월간중앙 1994년 10월호, 592-593.
- 3) 문숙재 · 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3.
- 4) 문숙재 · 김순미 ·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4(2), 171-183.
- 5) 매일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
- 6) 박일규(1993). 노동경제학. 서울 : 박영사.

- 7)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1), 1-14.
- 8) _____(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
222.
- 9) 조성숙(1994).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제4회 심포지
움*, 43-95.
- 10)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20.
- 11) Abdel Ghany, M & Foster, A.C.(1982).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21), 21-28.
- 12) Abdel Ghany, M. & Schwenk, F.(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
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 Economic Issues*, 14,
299-315.
- 13) Alhabeeb, M.J.(1995). Parental Expenditures on
Children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69-70.
- 14) Becker, G.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15) Bryant,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Ehrenberg, R. S. & R. S. Smith(1994). *Modern
Labor Economics*. HarperCollins Pub, 5th ed.
- 17) Huston, S.J.(1995).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 Ratio: Explo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51-56.
- 18) _____, S.J.(1996).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s on Educational Goods and Services.
ACCI, 42, 181-188.
- 19) Jang, Y.G.(1995). Expenditures on education for
Female-headed and married-couple household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45-50.
- 20) Lino, M.(1990). Expenditures on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21) Moon, S.J. & Kim, S.H.(1997). Education
Expenditure Patterns for Children of Korea
Married Couples. *Proceedings of the 2nd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212-214.
- 22) Park, S.Y. & Chiu-Fui Joyce Mok(1995).
Childcare Expenditures of Households: Tobit
Analysis for Different family Types.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193-198.
- 23) Schultz, T.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